

맘스터치, 가맹점주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 등 '갑질'

협의회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불이익 부정적 공지문·형사고소 등 압박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 부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가 가맹본부 맘스터치엔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가맹점수는 1392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점주협의회가 보낸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이후 맘스터치에 내용 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회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제차 요구했고,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

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또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특히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진청, 인삼 시중공급 소요시간 단축

조직배양·적응률 높이는 기술 개발



/농진청

우수한 인삼 품종을 시중에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농진청은 31일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한 세대가 3~4년인 데다 식물체 1개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불과 40개 정도에 불과해 수를 늘려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재래종 인삼 외에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 '금선'의 경우, 개발부터 보급까지 15년이 걸렸다.

농진청은 "인삼은 종자번식 작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4년 1회 씨앗 수확을 기준으로 40여 개의 씨앗만이 생산된다"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개의 씨앗을 얻는 셈이므로, 증식 배율이 10배"라고 밝혔다. 이를 벼와 비교하면 벼는 종자 1개에서 100알의 씨앗을 얻을 수 있어 증식 배율이 100배이다. 따라서 인삼은 벼에 비해 증식 배율이 1/10로 종자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려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은 종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조직배양 기술과 조직 배양체의 적응률(순화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기존의 조직배양 방법을 보완,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신품종 종자 보급에 필요한 종자 생산 속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종자 안의 떡잎을 유도 배지에 올린 후 체세포 씨눈(배)이 많이 생기게끔 한 뒤 이를 다시 성숙 배지에 옮겨 씨눈 발달을 도왔다. 그리고 씨눈이 정상적으로 트도록 발아 배지로 옮겨 수개월 만에 0.5g 내외의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했다. 유도, 성숙, 발아 등 배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과정별 최적 배지의 조건과 배양액을 확립한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그 결과, 식물체 1개에서 1년 만에 40개의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조직배양 모종은 흙에 옮겨 심었을 때도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고용공 사업설명회 보고서 제출 횟수 연 2회 → 1회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수의계약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지은행 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농식품부-농어촌공

'농지임대수탁사업' 먼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

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 기자 godhe@

화살나무 추출물, 관절·연골 건강에 효험

자원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치료제보다 3.2배 우수 효능 확인

콘드로이틴, 보스웰리아 등과 같이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국내 자생식물인 화살나무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1일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 사업을 통해,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천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티렉세이트보다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메토티렉세이트는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류마티스제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관절염 치료제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한테 이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특



화살나무. /국립생물자원관

허 출원을 마친 연구진은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 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예정이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가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 단속

설 연휴 기간 4300여곳 대상 실시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취약 지역 중심으로 2월1~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전인 2월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